

농어촌공사 500억 이상 수상태양광사업 '올 스톱'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 모두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33억원 규모의 '무안 구정 1.2 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등 올해 전국 14개 지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수상태양광사업을 발주했거나 발주 준비 중에 있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들로 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대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내놨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 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들과 달리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계획을 세웠던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들은 현재 올스톱 상태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나주호, 장성호, 해남방조제, 전북의 청호호, 옥구저수지

법제처 "발전수익은 유지관리재원으로만 활용해야" 해석

7조원 투자 대비 효과 미미... "민간 사업참여 확대해야"

등이 사업대상이었다. 나주호의 경우 1800억원을 투입해 100MW급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120만100㎡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중단·보류된 데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당시 농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오직 농업 시설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얻는 수익을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공사의 고유업무인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개 지역에 42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내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었다.

사업은 아심차게 출발했지만 관련 법의 규제로 인해 농어촌공사가 수조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공사 내부에서도 수상태양광사업 관련해 사업기간 장기화, 용역실시 등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용, 사업 불확실성 등이 제기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선책으로 농어촌공사는 '신에너지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활용해 민간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대신 농어촌공사가 19%의 지분을 갖는 제안사업도 검토해 왔으나 "농어촌공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민간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이 역시 현실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도 국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됐고, 사업을 아심차게 추진했던 최규성 사장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면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몇몇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공로를 통해 실시하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농림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업계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폭을 넓히고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리 등 최소한의 범위에 서만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제1회 고흥유자석류축제

Goheung Yuja Seoglyu Festival

2019. 10. 30. - 11. 3. / 5일간

장소 고흥군청 앞 유류부지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

유자·석류 재미있게 보고,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기자!



쑤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프로방스 광장에서 본 다도해

진도군 여름 관광지 방문객 작년보다 67% 증가

관광객 41만5720명 방문 등 쑤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인기

올 여름 진도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 이상으로 늘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6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7월 대령리조트 개장이후 전라남도에서 진도군이 '여름철 휴가지'로 이름을 떨쳤다.

쑤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이후인 올해 7월19일~9월 말 기준 진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41만5,720명으로 지난해 동기 24만8,937명 보다 67% 증가했다.

군은 쑤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과 함께 SNS에서 핫 플레이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보배섬 진도군의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체험거리 등이 인기라고 보고 있다.

특히 '쑤비치 호텔&리조트 진도'의 개장 등의 영향으로 진도군을 찾은 관광객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름 성수기 이전부터 진도군은 관광지 편의시설과 도로 등을 정비하고 진도군만

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관광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했다.

여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신문, 잡지, TV 여행 프로그램 등에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수도권 관광객을 진도군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냈다.

수려한 풍광과 깨끗한 해수욕장 수질, 다채로운 민속 공연, 친절한 운영, 저렴한 입장료는 방문객들에게 '가성비 값'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리는 진수성한 공연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되는 '진도이리랑 오거리 버스킹'이 지역 관광객 유입에 힘을 보탤다.

진도타워가 24,849명에서 68,047명으로 173% 증가했으며, 진도개떼마파르가 23,298명, 윤림산방 49,818명 등 총 10개 관광지 분석 결과 41만5,720명이 방문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보성군, 오는 31일 뮤지컬 갈라쇼 '인생은 영화처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서 무료 공연

보성군은 오는 31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갈라쇼 '인생은 영화처럼'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Phantom of Opera',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 등 익숙한 뮤지컬 넘버를 비롯해 오페라 투란도트 'Nessun Doma', 영화 라라랜드 'City of Stars(별들의 도시)' 등 다양한 노래들로 구성된 가을밤의 정취를 갖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을 이끌 그룹 앙상블 '제네다

(Geneda)'는 박동하, 임덕수, 임상훈, 신명근 등 뮤지컬 배우로 구성되었으며,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결성된 그룹이다.

실력과 뮤지션들로 구성된 그룹 앙상블 '제네다'는 4인 4색의 매력과 풍성하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31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850-8661~3) 또는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